

News

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 과열' 잠재울까?

뉴스스

오는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과열된 청약시장을 잠재울지 관심...
가평,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이 사실상 전매제한...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

'코로나 총당금' 美·유럽은 순익 2배 쌓는데... 韓금융은 제자리

뉴스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사는 올 1분기에 총당금을 총 7,305억원 쌓았다. 작년 1분기(6,672억원)에 비해 9.5% 늘어난 수준...
뱅크오브아메리카·JP모건·웰스파고·씨티그룹 등 미국 은행들의 올 1분기 합산 총당금 규모는 29조1,653억원...작년 1분기 보다 348.3% 급증...

신한은행, 아파트 외 신규 전세자금대출 일시 중단

연합인포맥스

신한은행, 오는 1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임차 주택의 신규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금지...
중지 대상 전세자금대출은 신한은행 재원으로 취급되는 신한전세대출...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계대출 속도 조절

"DLF에 라임까지" 고객 불만 폭주... 우리은행, 민원 증가율 '1위'

아시아경제

올해 1분기 기준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의 민원 건수는 총 685건...은행 모두 민원이 늘어나면서 전년(408건) 대비 67.9% 급증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이후 은행들의 펀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섭게 크는 GA... 칼 빠른 금융당국

서울경제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수수료 수입을 20% 이상 불리며 가파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은 GA,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보험사와 GA에 대한 연계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위와 상품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심

암 보험금 두 번 주라는 금감원, 제2의 '즉시연금' 되나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암 진단금을 두 번 지급하라 보험사에 권고...진단금을 최초 1회만 받는 일반 암보험 가입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보험의 원칙을 깨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금감원 관계자, "동양생명 분쟁 조정 건은 보험사별로 약관이 다 달라 일괄구제 대상은 아니다...추가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각사례별로 살펴봐야 할 것"

미래에셋 美호텔인수 취소 둘러싼 소송, 8월 첫 재판

연합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安邦) 보험이 미국 내 15개 호텔 매매계약 취소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돌입한 가운데 첫 재판이 8월 말로 결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로펌 '피터앤김'과 '퀸 엠마누엘'을 선임해 안방보험의 소송에 대한 응소와 반소를 내기로 결정

금융데이터 거래소 개설...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경제 첫발

연합뉴스

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거래소를 열어 연말까지 시범운영...맞춤형 정보를 '한 번에' 거래
아직 데이터 적정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구매자가 거래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초기 거래 활성화에 위해 보조금 개념의 데이터 바우처(지불 보증서)를 지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

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

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